

기획시리즈-성인 열전 5

나약한 인간이었기에 더 큰 울림 주는 신앙의 모범
베드로(Peter) 성인



성인명 베드로 (Peter)
축일 6월 29일
성인구분 성인
신분 사도, 순교자, 교황
활동지역 ?
활동연도 +64년경
같은이름 베드로스, 페드로, 페트루스, 피에르, 피에르토, 피터

나약한 인간이었기에 더 큰 울림 주는 신앙의 모범

6월 29일은 전례력으로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이다. 두 사도는 교회의 본질과 특징의 양면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존재다. 베드로 사도는 일치의 상징이다. 이를 위해 그에게 수위권이 부여되면서 교회의 반석으로 자리매김한다. 바오로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리스도교를 전 세계로 확장시켜 진보와 개방의 상징이 됐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뛰어난 업적을 펼친 것은 아니다. 누구보다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에서 출발한다.

흡수저 시몬(베드로), 금수저 사울(바오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전, 두 사도의 출생과 성장과정은 많은 차이가 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접촉이 잦았던 갈릴래아 벳사이다 지방에서 어부 요한의 아들로 태어나 동생 안드레아와 함께 어부로 일했다. 결혼한 후에는 카파르나움으로 이사해 장모를 모시고 살았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요한 세례자를 따르는 제자였다. 군중들을 가르치던 예수는 어부 시몬의 배에 올라타 '사람 낚는 어부'로 그를 부른다. 시몬을 유심히 본 예수는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고 불렀다. 베드로는 훗날 실제로 교회의 반석이 되지만 예수의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는 지극히 단순하고 가난한 어부였다.

반면 바오로는 열심한 정통 유대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은 바리사이였고, 그리스 문화가 찬란하게 꽃피운 대도시 킬리기아의 수도 '타르수스'라는 지역에서 자랐다. 또 로마 시민권을 태생부터 갖고 있었다. 그가 지녔던 유대식 이름 사울과 로마-그리스식 이름 바오로는 이렇게 화려한 배경에 기인한다. 아울러 바오로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중해의 여러 도시들을 왕래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이런 문화배경은 큰 도움이 됐다.

겉쟁이 베드로, 박해자 바오로

확연히 차이 나는 두 사도의 출생과 성장배경은 각기 다른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성경에서 베드로는 두려움에 가득 찬 모습으로 자주 나타난다. 예수와의 첫 만남부터 그러하다. 배에 올라탄 예수의 지시로 많은 물고기를 잡자 베드로는 기뻐하기보다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말한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루카 5,8) 이런 그에게 예수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타이르며 첫 제자로 부른다.

또 스승의 부름에 물 위로 발을 옮겼지만 두려움에 싸인 베드로는 허우적대고, 이 모습을 보며 예수는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이후 절정의 순간인 예수가 수난당할 때도 두려운 마음에 베드로는 세 번이나 자신의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한다.

겉 많았던 베드로와 달리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서 철저한 종교교육을 받았던 바오로는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다고 고백한다.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율법에 따른 의로움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필리 3,6) 때문에 바오로는 율법을 비판한 예수를 저주받은 자로 여겼다. 나아가 율법 신봉자였던 바오로는 율법과 성전에 비판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선다.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사도 6,11) "사울은 스테파노를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사도 8,1) 이와 같이 바오로는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

베드로의 눈물, 바오로의 회심

이렇듯 겉 많던 베드로와 악랄했던 바오로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을까.

우유부단하고 소신 없는 모습으로 비춰진 베드로는 예수의 인내와 가르침 속에서 성장한다. 아울러 예수에 대한 베드로의 응답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마태 16,15)는 예수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마태 16,16)라고 고백한다. 믿음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건넨다. 이후 베드로는 수난당하는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 모습을 자책하며 통곡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활한 예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베드로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자신의 양들을 맡긴다.

반면 바오로는 극적인 체험을 통해 단번에 회심을 한다.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 부활한 예수를 만나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박해자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급변했고 그의 신념과 신학에 일대 전환이 일어났다. 누구보다 열심한 바리사이파 유대인이었던 바오로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쓰레기로 여겼다.(필리 3,8)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기 위해서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체험은 마침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갈라 2,20)이라고 표현하기에 이른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오로

예수 승천 후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지도적인 인물로 활동한다. 주로 예루살렘 지역에서 신자들을 돌보며 설교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다. 부활한 예수에 대한 베드로의 증언은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불꽃을 일으켰다.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했던 베드로와 달리 바오로는 이방인들의 사도로 자처하며 선교를 다녔다. 세 번에 걸친 바오로의 전도여행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전도여행 중 바오로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지만, 서간문 형식으로 저술한 그의 가르침은 그리스도교 교리가 형성되는데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두 사도의 관계는 각별했다.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와 이방인의 사도 바오로는 서로에게 큰 영향을 줬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열린 사도들의 회의(사도 15장)를 통해 두 사도의 카리스마를 엿볼 수 있다. 바오로가 제1차 전도여행을 끝내자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과연 이들에게 유대인들의 율법, 그 중에서 할례에 관한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해야 할 것인가가 쟁점으로 대두됐다. 열띤 회의 끝에 사도들은 유대교 율법에 따라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 개종한 이방인들을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여기로 했다. 아울러 이방인 전교를 바오로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에는 베드로의 의견이 크게 영향을 줬다.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한 두 사도는 네로 황제(54~68)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시기에 순교했다.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바오로는 참수형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이들이 같은 해, 같은 날 순교했는지에 대한 고증은 불가능하지만, 이미 3세기 중반부터 6월 29일에 두 사도를 함께 기념하기 시작했다.

연중 제 12주일

2023년 06월 25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AM~3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베드로의 순교〉 미켈란젤로 1546-50, 파울리나 성당, 바티칸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예레미야서 20,10-13
- # 화답송 시편 69(68),8-10,14와 17,33-35(◎ 14ㄴ참조)
◎ 주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5,12-15
- # 복음 환호송 요한 15,26,27 참조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 # 복음 마태오10,26-33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셨다.〉
- # 성가번호 입당 19 봉헌 213 성체 175 파견 48

성당 소식

🌸 새로 오신 분, 방문해 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

🌸 미사지향 (연미사)

- 권숙자(요안나) - 최 세레나
- 이석중(스테파노) - 가족
- 추성태(바오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최예생 - 김 스텔라
- 소형덕(베드로) - 가족
- 최남순 - 박화성(헬레나)
- 유태순(마리아) - 채희백(바오로)가족

🌸 미사지향 (생미사)

- 최승웅(미카엘) 부제님 - 변태용(요셉) 가족
- 염은미(클라라) - 가족, 변태용(요셉) 가족
- 방상호(요한) - 임 안나
- 방진숙(테레사) - 임 안나
- 하건철(안토니오) - 가족, 노스브런스워 구역
- 하연승(요한) 가족 - 김순옥(율리아)
- 하준석(마태오) - 노스브런스워 구역, 김순옥(율리아)
- 김순옥(율리아) 생일 축하 - 한상철(빈첸시오) 가족
- 성순영(라파엘라) 가족 - 채미영(테레사)
- 추해웅(오스틴) - 채희백(바오로)가족
- 성경숙(아가다) - 정 데레사, 아네스, 이레네, 실비아, 헬레나

• 이 마이클 - 정 데레사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139명)..... \$1,268
- 교무금 \$750
- 곽신규(5-6) 전광수(5-6) 추승호(5-6)
- 염기선(6) 허중(6)

🌸 은혼식, 금혼식 축하 예식

- 결혼 25주년, 50주년을 기념하여 혼인 서약을 새롭게 하는 혼인갱신식이 체키오 주교님 주례로 있습니다.
- 일시: 10월 22일(주일) 오후 3시
- 장소: 메타천 주교좌 대성당 St. Francis of Assisi Cathedral
- 등록: <http://www.diometuchen.org/silver-and-gold-anniversary-celebration>
- 등록 마감: 10월 6일(금)

🌸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 곽 율리안나 방진숙(테레사)

🌸 사무실 하계 휴가

- 6/23-7/9 까지 사무장 휴가로 인해 사무실 업무가 불가능합니다. 사무장에게 전달하실 감사헌금, 교무금, 미사지향 신청 예물등은 봉헌금과 함께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사무장이 휴가 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3 Bishop's Annual Appeal (Renewed and Sent on Mission by the Eucharist)

- 2023년 목표금액은 \$37,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되며 5/26까지 약정 금액은 \$39,309.14 (106.24%)입니다. 목표액 \$37,000에서 \$2,309.14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 2차 헌금

- 7월 9일: 유틸리티

🌸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구역별 친교 봉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매월 첫째 주일 미사 후, 친교실에 준비된 간식/차와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봉사 당번: 7/2 노스브런스워 8/6 텃거스

🌸 매일미사책 1년 구독 신청 (2023년 8월 - 2024년 7월)

- 일반 매일미사 90불 / 대형 매일미사 120불
-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성함과 구독 비용을 봉투에 넣으셔서 주일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사제관 메일함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 신청 마감: 7월 2일(주일)
- 문의: 사무장 732-258-5998

🌸 <금주의 평일미사> 와 <읽어드립니다> 는 6/27부터 당분간 쉽니다.

🌸 기획분과회의

- 일시 및 장소: 7월 2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 요셉회 모임

- 일시 및 장소: 6월 25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 노스브런스워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7월 2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7월 9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 미 동북부 레지오 마리에 봉쇄교육

- 일시: 2023년 9월 15일(금) 오후 4시-17일(일) 오후 5시 (2박 3일)
- 장소: 뉴저지 뉴턴 베네딕도 수도원
- 인원: 선착순 35명 (분당별 배정 없음)
- 신청마감: 2023년 8월 20일(주일) 까지
- 지도신부: 장재명(파트리치오) 신부
- 참가비: \$300 (2박 3일 숙식비 포함)
- 준비물: 성서, 레지오 교본 및 수첩, 목주, 세면도구, 실내화, 간편한 옷차림, 정장(또는 한복) 한벌
- 신청방법: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과 본당 신부님의 서명을 받은 후 채미영(테레사) 꾸리아 단장님께 신청서류와 참가비를 일괄 접수

🌸 본당 유지 관리 현황

- 사제관 출입구 천정 보수
- 성모공원 스프링클러 설치, 성당 스프링클러 테스트 및 가동 시작

🌸 공지사항

성당 건물 관리를 위하여, 주일 한국어 미사 후에는 엘리베이터 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밖에서 잠글 예정이오니 성당 문단속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가 끝나고 오후 1시 이후에는 정문 사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 정문이 잠겨져 있을 경우에는 다른 출입문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번역

🌸 제1독서: 예레미야서 20,10-13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군중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마고르 미싸빕이 지나간다!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가까운 친구들마저 모두 제가 쓰러지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속아 넘어가고 우리가 그보다 우세하여 그에게 복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께서 힘센 용사처럼 제 곁에 계시니 저를 박해하는 자들이 비틀거리고 우세하지 못하리이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여 크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들의 수치는 영원히 잊히지 않으리이다. 의로운 이를 시험하시고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만군의 주님 당신께 제 송사를 맡겨 드렸으니 당신께서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소서. 주님께 노래 불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가난한 이들의 목숨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5,12-15

형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어서 죄가 죄로 헤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죽음이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예형입니다. 그렇지만 은사의 경우는 범죄의 경우와 다릅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느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총만히 내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마태오 복음10,26-33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두 마리가 한 닢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에우차리교구공회

🌸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2023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이 지난 성체 성혈 대축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목표는 성체성사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일깨움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3년 동안의 계획으로,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교육하며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 중에서도 실제로 그리스도의 성체성사에 대한 진리적 존재를 믿는 사람은 31%에 불과합니다.

이 3년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믿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우리 믿음의 근원이자 정점인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성체성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는 교구 부흥의 해, 2024년 National Eucharistic Congress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7월 17일-20일)와 국가 선교의 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 Our Lady of Mercy성당에서는 매 주 미사 중 공지사항 시간에 교육적인 “신앙상식” 시리즈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를 주보에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학생들이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님의 존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외에도 강연 시리즈와 모든 교구 신자들을 위한 Night of Mercy행사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전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전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안에는 영원한 천상의 잔치가 있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기쁨이 늘 함께 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분은 우리가 그 분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 분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